

대전기독교청년회(YMCA)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YMCA / 전화 472-3399, 팩스 472-3769, <http://www.dreamymca.com>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 전화 253-8176, 팩스 252-6976, 인터넷홈페이지 <http://www.cham.or.kr>

수 신 / 언론사 담당기자 등

발 신 / 참여자치연대(담당 : 금홍섭 시민사업국장, 016-407-8176)

제 목 / 대전경륜장 경제성 분석 결과 보도자료

날 짜 / 2003. 4. 11. 오전 11시

보 도 자 료

2006년부터 5년간 지역주민 8,200억 ~ 1조 2,000억원 부담

득실분석 결과 같은기간 1,400억 ~ 3,800억 손실

대전경륜장 건립을 둘러싸고 '지방세수 확보'와 '사행심 조장'이라는 상반된 주장이 대립각을 형성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대전경륜장 개장후 5년동안 대전충남 지역주민들은 최소 1,200억원에서 3,800억원의 손실을 보게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관심을 끌고 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와 대전기독교청년회(YMCA)는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대전경륜장 건설 경제성 분석'이란 보고서를 통해 대전경륜장 건설을 통해 얻는 지방세수 등의 득보다 도박중독자 양산 등 지역주민이 입는 손실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대전경륜장이 개장되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지역으로 귀속되는 지방세수는 6,700억~8,200억원인데 반해, 대전충남 지역주민이 부담해야 되는 비용은 8,200억~1조2000억 원에 이르러, 결국 1,200억~3,800억원의 손실을 입는다고 지적하고, 대전시는 경륜장 건설에 즉각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가 주장하는 손실 근거로는 대전경륜장이 개장되면 향후 5년간 얻어지는 지방세수는 레저세, 지방교육세, 지방체육진흥배분액 등 최소 6,700억~8,2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대전시는 전망하고 있으나, 지역주민 베타손실금액과 경륜장 건설 감가상각비, 도박중독자치료 등 사회적비용 등의 지역주민이 부담해야 되는 비용은 이보다 훨씬 많은 8,200억~1조2000억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전 경륜장 고객가운데 대전충남 지역주민이 고스란히 잃는 비용만도 최소 5,201억에서 많게는 9,002억원에 이르고, 대전경륜장 건설 감가 상각비 274억을 포함하면 대전시가 얻는 지방세수 비용과 비슷하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2001년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표한 성인인구 9.3%(도박인구 1인당 523,560원) 기준을 대전광역시에 적용하면 93,815명에 이른다며, 이를 사회적 비용으로 단순계산하면, 5년간 2,725억 원에 이른다는 주장이다.

대전시가 '대전경륜장 타당성 용역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이런 사회적 비용은 전혀 계산하지 않았다며, 기존 3개 장외발매소에 이어 대전경륜장이 개장한다면, 기존 도박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도박수요를 창출할 수 밖에 없어 대전시 도박중독자만도 10만명은 족히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단체는 대전경륜장 개장에 따른 지역자금 역외유출 비용도 5년간 1,480억~1,896억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며, 매년 300억원이 넘는 지역자금이 역외로 유출되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지 못하는 비생산적인 사업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결론적으로 이단체는 현재 51개소 이르는 도박장이 앞으로 70개 이상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전경륜장 개장은 새로운 도박인구의 신규수요를 가져와 지역사회적인 문제가 될 소지가 크다고 하며, 경륜장 건설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단체는 대전시 재정문제의 핵심은 지하철 건설에서 기인한다며, 저비용 고효율의 교통정책 도입과 더불어 지하철 국가 공사화를 관철시킬 수 있도록, 정치권, 행정기관, 언론,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범 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 본 보도자료는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홈페이지(www.cham.or.kr)
주요이슈 방에 올려져 있습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상임의장 최교진)
대전기독교청년회(이사장 안상석)

대전경륜장 경제성 분석결과

대전YMCA,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 기자회견



우리들이 만들어가는 살기좋은 대전!

**10만 도박중독자 양산하는
대전경륜장 건설 반대한다!**

■ 일시/ 2003년 4월 11일(금) 오전 11시

■ 장소/ 대전광역시 기자실

■ 개 회

■ 인사말

■ 참석자 소개

■ 대전경륜장 건설 경제성 분석 결과 설명

■ 대전경륜장 건설 반대 성명서 낭독

■ 질의 응답

■ 폐 회

대전기독교청년회(YMCA)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첨부자료 1 / 대전경륜장 건설 경제성 분석

1. 조사개요

1.1. 분석배경 및 목적

대전경륜장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막대한 지방세수 확보를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대전시는 지난해 『대전경륜장 사업 타당성 용역』을 통해, 대전경륜장이 만들어지면 막대한 지방세수 확보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보고서 결과를 내놓은바 있다.

그러나 대전경륜장 타당성 보고서에는 지역주민의 부담(즉 비용)에 대한 정확한 계산과 수진 분석에 대한 비교분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지방세수 확보라는 타당성을 제시할 근거를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번 대전경륜장 개장에 따른 이해득실 분석을 위해 i) 도박산업의 현황 및 문제점, ii) 지역민 도박참여자 손실액, iii) 대전시 도박중독자 추산, iv) 도박중독에 따른 사회적 비용 추산, v) 대전충남 지역주민 부담금, vi) 지역자금 역외유출 비용, vii) 결론 및 대안을 제시하고, 대전충남 지역주민의 관점에서 ‘지역민 매출액 대비 지방세수 확보’ 및 ‘사행성 조장’이라는 이해득실을 비교분석 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1.2. 분석방법

대전경륜장 이해득실 분석을 위해 대전시에서 용역의뢰한 ‘대전경륜장 타당성 용역보고서’를 정밀 분석하였으며, 도박산업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관련 문헌 및 기초 자료를 수집 참고 하였다. 아울러, 대전경륜장 이해득실 분석을 위해 지방세수 대비 지역주민 부담금을 비교분석하는 방법을 도입하였다.

2. 도박산업 현황 및 문제점

2.1. 도박산업 실태

- 총매출 / 13조 9,396억원
 - ※ 2001년보다 29.9% 늘어났고 2000년도에 비해서는 두배나 급성장
- 도박 참여인구 / 2,320만8천명(2001년대비 21.4% 성장)
- 총레저산업 대비 도박산업 비율 / 51.4%
 - ※ 같은기준 일본의 26%에 비해 두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도박산업 참여자 총 손실액 / 4조 717억원(2000년도 보다 두배나 급증)
- 1인당 1일 베팅비용 / 경륜은 55만9천원으로 카지노 다음으로 높음

<참고자료> 국내 도박산업의 부문별 1인당 1일 베팅액 비교

	강원카지노	경 룡	경 마	경 정	복 권
2002년(만원)	224.9	55.9	47.0	27.9	0.41

2.2 도박시설 현황 / 현재 총 51개소

구 분	위 치
경 마 장	경마장(2개소) 경기 과천, 제주
	장외발매소 (28개소) 강남, 광명, 광주, 구리, 논현, 대전 , 마포, 부천, 부평, 분당, 서초, 선릉, 성동, 수원, 송인, 용산, 안산, 영등포, 의정부, 인천, 일산, 중랑, 창동, 천호, 강북, 부산, 시흥, 대구
경 룡 장	경륜장(2개소) 서울, 창원
	장외발매소 (13개소) 수원, 상봉, 일산, 동대문, 인천, 분당, 장안, 산본, 부천, 관악, 당산, 길음, 대전유성
경 정 장	경정장(1개소) 서울 미사리
	장외발매소 (3개소) 대전유성 , 장안, 상봉
우 권 장	경북 청도
카 지 노	강원 정선

※ 앞으로 부산경륜장, 청도 우권장, 광주경륜장, 각종 발매소 등 70여개로 늘어날것으로 전망.

3. 대전경륜장 대전충남 지역민 손실액

3.1. 대전광역시 순수재정 수입금

(단위 / 억원)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총 계 (06~10년)	
	2안	3안	2안	3안	2안	3안	2안	3안	2안	3안	2안	3안
레저세	408	523	513	636	649	780	825	965	1,054	1,202	3,449	4,106
지방교육세	245	314	308	382	390	468	495	579	632	721	2,070	2,464
지방체육진흥배분액	70	103	132	213	215	303	326	423	474	580	1,217	1,622
소 계	723	940	953	1,231	1,254	1,551	1,646	1,967	2,160	2,503	6,736	8,192

※ 대전시 순수재정 수입금 = 레저세 + 지방교육세 + 지방체육진흥 배분액

- 레저세 = 경주권매출액 × 10%
- 지방교육세 = 경주권매출액 × 6%
- 지방체육진흥 배분액 = 수익금(발매수득금(경주권매출액 - 환급금 - 제세) - 운영경비) × 60%

대전경륜장 운영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대전시가 얻는 순수재정 수입금은 2안일 경우 총 6,736억, 3안일 경우 8,192억원에 이를 것으로 대전경륜장 타당성 전망 용역 보고서에서 전망하고 있다.

3.2. 대전충남 지역민 도박참여자 순 손실금

(단위 / 억원)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총 계 (06~10년)	
	2안	3안	2안	3안								
손실액(70%)	881	1,183	1,098	1,420	1,376	1,718	1,733	2,098	2,194	2,583	7,286	9,002
손실액(50%)	629	845	784	1,014	983	1,227	1,238	1,499	1,567	1,845	5,201	6,430

※ 대전충남 지역민 고객 손실액 = (경륜 총 매출 - 환급금) × 70%

※ 2003년 4월 1일 현재 도박시설은 전국에 총 51개소이나 앞으로 부산 경륜장, 경마장, 청도 우권장 등을 포함해 각종 장의 발매소가 지방도시에 개장하면 총 70여개소는 넘어설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지역간, 업종간 치열한 경쟁으로 말미암아 대전충남 지역민들의 대전경륜장 이용율은 높아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대전경륜장을 이용하는 총 고객가운데 대전충남 지역민이 차지하는 비율은 현 시점 예측보다는 앞으로 업종간 지역간 경쟁이 치열해질 가능성이 큼으로 인해서 각각 50%, 70%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총 고객 점유율 70%로 적용할 경우,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대전충남 지역민이 입는 총 손실액은 2안일 경우 7,286억원, 3안일 경우 9,002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고객 점유율 50%를 적용해도, 2안 5,201억원, 3안 6,43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결과를 대전시가 얻는 순수 재정수익금과 비교해보면, 총 고객 점유율 70%를 적용하면 최소 550억원에서 810억원의 손실을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총 고객 점유율 50%를 적용할 경우, 1,535억에서 1,762억원의 이득을 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건설비 감가상각비(5년간) 274억원, 역외유출, 도박중독자 치료 등 사회적비용 등을 감안하면 엄청난 손실을 볼 수 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대전경륜장의 수익성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업종간(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 우권 등) 경쟁과 지역간 경쟁이 본격화 될 경우 수익성이 더욱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대전경륜장은 세수확대에 기여하기보다는 오히려 대전시민과 충남도민의 호주머니만 축내는 결과만 가져올 가능성 마저 있다.

3.3. 대전경륜장 건설 감가 상각비

(단위 / 억원)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총 계 (06~10년)
경륜장 건설 감가상각	54.7	54.7	54.7	54.7	54.7	273.5

※ 대전경륜장 타당성 용역보고서 참조

3.4. 대전시 도박중독자 추산

구 분	미 국	캐나다	호 주	한 국	대전시(예측)
도박중독자		2.6%	2.1%	9.3%	93,815명
문제도박자		1.3%	1.1%	5.5%	51,598명
병적도박자	1~1%	1.3%	1.0%	3.8%	43,217명

※ 도박중독자(93,815명) = 2001년 대전광역시 20세이상 인구(1,008,276명) × 9.3%

※ 국민체육진흥공단 용역보고서(2001년)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인구의 9.3%에 해당되는 약 300만명이 도박중독자로 추산하고 있음.

현재 도박산업이 급팽창하고 있는 가운데 2001년 기준으로 2006년 대전광역시 도박중독자 인구를 추산하는 것은 최소한의 도박중독자 인구추계라 판단되며, 최소한 10만명은 족히 넘어설 것이라는 추산이 가능하다. 특히, 도박산업이 성장하면 할수록 더 많은 국민들과 대전시민들이 더 많은 돈을 잃게 되고, 또 도박중독자들을 양산하게 될 것이다.

기존 3곳에 이르는 장외발매소와 더불어 대전경륜장 개장은 결국 기존 도박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도박수요를 창출할 수 밖에 없어 도박중독자를 양산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대전시는 유념해야 한다.

3.5. 도박중독에 따른 사회적 비용

(단위 / 억원)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총 계 (06~10년)
도박중독에 따른 사회적 비용	529	537	545	553	561	2,725

※ 도박중독에 따른 사회적 비용 = 대전시 성인인구 × 도박중독율(9.3%) × 1인당 비용(523,560)

※ 도박인구 1인당 사회적 비용 추산 = 10조(2001년 사회적 비용) ÷ 1,910만명(2001년 도박인구)

※ 대전시 인구증가율 1.5% 적용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용역의뢰한 『병적도박 실태조사 및 치료 프로그램(2002)』에 따르면, 2001년 기준으로 도박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와 범죄 등 국내의 사회적 손실을 연간 10조로 추산하고 있어, 2001년 합법적인 도박산업 매출액 9조원을 웃돌고 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도박중독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총 2,725억원으로 조사되었다.

4. 대전경륜장 득실 비교분석

4.1. 대전·충남 지역사회 부담금(지역민 고객점유율70%일 경우)

(단위 / 억원)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총 손실액 (06~10년)	
	2안	3안	2안	3안								
지역주민 베틀손실 점유 70%	881	1,183	1,098	1,420	1,376	1,718	1,733	2,098	2,194	2,583	7,282	9,002
경륜장 건설 감가상각	54.7	54.7	54.7	54.7	54.7	54.7	54.7	54.7	54.7	54.7	273.5	273.5
도박중독에 따른 사회적 비용	529		537		545		553		561		2,725	
소 계	1,464.7	1,766.7	1,689.7	2,011.7	1,975.7	2,317.7	2,340.7	2,705.7	2,809.7	3,198.7	10,280.5	12,000.5
지방세수 수입금	723	940	953	1,231	1,254	1,551	1,646	1,967	2,160	2,503	6,736	8,192
소 계											-3,544.5	-3,808.5

대전충남 지역민이 차지하는 고객 점유율이 70%였을 때, 대전경륜장으로 인해서 유발되는 대전충남 지역사회 총 부담금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2안은 1조280억원이었으며, 3안은 1조 2천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대전경륜장 지방세수 수입금과 비교해보면, 2안일 경우, 대전충남 지역주민들은 3,545억원의 손해를 보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3안일 경우 3,809억원을 손해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4.2. 대전·충남 지역사회 부담금(지역민 고객점유율 50%일 경우)

(단위 / 억원)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총 손실액 (06~10년)	
	2안	3안	2안	3안								
지역주민 베틀손실 점유 50%	629	845	784	1,014	983	1,227	1,238	1,499	1,567	1,845	5,201	6,430
경륜장 건설 감가상각	54.7	54.7	54.7	54.7	54.7	54.7	54.7	54.7	54.7	54.7	273.5	273.5
도박중독에 따른 사회적 비용	529		537		545		553		561		2,725	
소 계	1,212.7	1,428.7	1,375.7	1,605.7	1,582.7	1,826.7	1,845.7	2,106.7	2,182.7	2,460.7	8,199.5	9,428.5
지방세수 수입금	723	940	953	1,231	1,254	1,551	1,646	1,967	2,160	2,503	6,736	8,192
소 계											-1,463.5	-1,236.5

대전충남 지역민이 차지하는 고객 점유율이 50%였을 때, 대전경륜장으로 인해서 유발되는 대전충남 지역사회 총 부담금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2안은 8,199.5억원이었으며, 3안은 9,428.5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대전경륜장 지방세수 수입금과 비교해보면, 2안일 경우, 대전충남 지역주민들은 1,464억원의 손해를 보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3안일 경우 1,237억원을 손해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4.3. 지역자금 역외유출

(단위 / 억원)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총 계 (06~10년)	
	2안	3안	2안	3안								
국민체육진흥기금	12	17	22	34	35	49	52	68	76	93	197	261
청소년육성기금	12	17	22	34	35	49	52	68	76	93	197	261
산업발전기금	20	30	38	60	61	85	92	118	132	162	343	455
문화관광부장관사업	3	4	5	9	9	12	13	17	19	19	49	61
농어촌특별세	84	113	105	135	131	164	165	200	209	246	694	858
소 계	131	181	192	272	271	359	374	471	512	613	1,480	1,896

지역자금 역외유출 정도를 분석한 결과,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2안일 경우 1,480억원이 역외로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안일 경우 이보다 많은 1,896억원이 역외로 유출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5. 결론 및 대안제시

“대전시 재정난 대책, 경륜장보다는 지하철 건설·운영의 국가공단화가 시급”

대전시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대전경륜장 건설은 새로운 도박인구의 신규수요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전면 백지화 해야 한다.

여당인 민주당이 도박산업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기획단 구성을 추진중에 있는바, 대전시도, 지역민의 삶의 질의 피해를 가져오는 경륜장 유치보다는 도박산업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와 중장기 계획 수립 등 도박관련 법의 개정을 중앙정부기관에 요구하는 등 좀 더 적극적인 인본행정을 펼쳐야 할 것이다.

아울러, 대전시 재정문제의 핵심은 지하철건설에 기인한다는 점에서, 저비용 고효율로의 교통정책의 전환과 더불어 지역민의 합의를 모아, 지하철 국가공사화를 관철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히, 대전시 지하철은 막대한 건설비 소요는 물론, 개통이후에도 매년 200-300억원의 막대한 순수운영 적자를 가져와 대전시 재정운용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지하철 국가공사화는 불가피한 선택이다. 따라서, 지하철 국가공사화를 위한 정치권, 행정기관, 언론,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범 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첨부자료 2 / 대전경륜장 건설 반대 공동성명

10만, 도박중독자 양산하는 대전경륜장 건설 반대한다!

실제로, 지난해 우리나라 도박산업 총 매출이 13조를 넘어섰으며, 국민 두명중에 한명꼴로 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 도박을 경험을 할 정도로 도박시설은 우리사회 곳곳에 침투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첨단과학 기술도시라는 대전시의 말이 무색할 정도로, 대전시에도 최근들어 대형 도박시설이 곳곳에 침투하고 있다. 마권장외발매소와 장외경륜장에 이어, 장외경정장이 슬그머니 들어오는 등 지방도시가운데는 처음으로 3개 도박시설이 모두 들어와있는 도박도시로서의 위상을 갖춘꼴이 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만 가고 있다.

이지경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대전시는 도박산업에 대한 수요와 적정 공급계획 조차 없이 지방세수 확대라는 명분아래 대전경륜장 건설 추진을 강행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우리는 그동안 대전시가 경륜장 건설 강행을 위한 왜곡된 여론수렴 절차를 밟고 있는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정확한 시민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주민투표에 붙일 것을 권고한바 있으며, 타당성 검토뿐만 아니라, 정확한 도박수요를 조사하고 정적 공급계획을 세울 것을 촉구 한 바도 있다. 아울러, 우리는 청와대와 문화관광부에 과열되고 있는 도박산업유치 경쟁과 도박산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한바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시가 대전경륜장 건설을 강행하려는 것은 도박수요를 조장하여 지역주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지방세수를 벌어들이려는 무책임한 행태이자, 스스로 공기관으로서의 책무를 포기하는 대표적인 사례라 하지않을 수 없다.

특히, 대전시가 과포화 상태에 이른 우리나라 도박산업의 문제점을 외면하고, 세수증대와 시민 레저 기회제공이라는 명분아래 대규모 경륜장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은 10만 도박중독자(우리나라 도박중독자 성인인구의 9.3%)를 만드는 것을 재촉하는 결과나 다름없다.

상기해보면, 그동안 시민단체의 경륜장 사업 포기요구에 대해 대전시는 합리적인 대안을 강구하려는 노력 보다는 이곳에 하지않더라도 인근에 위치한 충청북도나 전라북도가 경륜장 건설을

하게된다며, 결국 대전시민들의 손실은 더 커진다는 대전경륜장 건설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논리를 끊임없이 유포해왔다.

그러나 과연 대전시가 도박산업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인근 광역단체와의 공동협의 한번 하였는지, 또는 도박산업 허가권이 있는 문화관광부에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제대로 전달하고 합리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제대로 한번 언급한 적 있는지 되묻고 싶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대전시는 지하철 등 굵직굵직한 각종사업과 국제 위주의 중앙집권적 조세체계 때문에 열악한 지방재정을 극복할 방법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대전경륜장 건설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주장이 사실이라면, 조세체계의 개선을 요구하고, 고비용 저효율의 잘못된 교통정책의 전환과 더불어 지역민의 합의를 모아 지하철 국가공사화를 관철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대전시가 이러한 자구노력은 외면한채 대전경륜장 건설만이 대안인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지방세수 확보를 위해 새로운 도박수요를 유도하고, 더 많은 시민들이 돈을 잃도록 조장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으며, 이는 대전시 스스로 공공성을 포기하는 행태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대전경륜장 경제성 분석결과에서 나타나듯이, 대전경륜장 건설은 지방세수 등 지역사회가 얻는 이득보다는 손실이 훨씬크다는 것을 명백하게 확인하였다.

따라서, 대전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대전경륜장 건설이 새로운 도박수요 창출과 지역주민의 막대한 손실로 귀결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점에서, 대전경륜장 건설을 전면 백지화 할 것을 촉구한다.

다시한번 언급하지만, 대전시의 경륜장건설 추진여부에 대해서는 시민여론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아울러, 무분별한 도박산업을 규제할 수 없는 기존 제도로는 시민적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없다는 점에서, 과열된 도박산업의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강구할 것을 권고하는 바이다.

아울러 진정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경륜도박장의 건립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주민투표에 부치거나, 공정하고 객관적인 여론조사를 거쳐 결정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우리의 이러한 권면에도 불구하고 대전시가 시민여론 수렴을 절차를 외면하고 밀실에서 독단적으로 대전경륜장 건설을 추진한다면 범시민적 저항 운동을 전개할 것임을 경고한다.

2003년 4월 11일

대전YMCA,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